

비피도, '100세 장수시대의 프로바이오틱스' 주제로 심포지엄 성료

- ▶ 비피더스균 특징점, 역할, 기능, 인증 등 발표 통해 인식 개선
- ▶ 상온 유통 가능한 기술 구축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새로운 물결 만들 것

[2024-06-24] 비피도가 심포지엄을 통해 비피더스균에 대해 설명하며 우수성을 알렸다.

비피더스균 기반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비피도(238200, 대표이사 신용철·박명수)는 '100세 장수시대의 프로바이오틱스: 비피더스균'을 주제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KMB)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공식 밝혔다. 박명수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피더스균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특히, 자사의 비피더스균으로 진행된 공동연구 결과도 일부 발표됐다.

강연자로는 서울대 이주훈 교수, 유현주 교수, 경희대 정윤주 교수, 식약처 이미영 주무관으로 ▲비피더스의 분류학적인 의미와 락토바실러스와의 차이점, 특징점 ▲노화에서 비피더스균의 역할 ▲장관면역 최대 면역기관인 장관에서 비피더스균의 항염증성 면역조절 기능 ▲미국 FDA의 NDI(신규 식품원료) 인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BGN4, BORI의 뇌건강 개선효과 ▲RAPO균주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폐섬유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개선효과에서 비피더스균의 면역조절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활용을 통한 정확한 기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비피도 박명수 대표이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산균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비피더스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에 있어 장환경에 가장 적합한 비피더스균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소, 습도, 열 등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유통이 어려웠던 비피더스균을 상온에서도 유통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 중에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피도는 1994년부터 비피더스균을 기반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2018년 비피더스균 BGN4, BORI와 2019년 비피더스균 AD011을 국내 최초로 GRAS, NDI에 등재한 바 있으며,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뤄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며, 2025년 상반기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으로는 비피더스균은 유산균과 완전히 다른 분류체계로 유산균에 비해 초산을 더 많이 생산해 더 높은 유해균 억제 능력을 나타내는 등 생리학적, 기능적 차이점을 설명했다. 특히 비피

더스균은 항생물질도 생산해 미생물 간 경쟁이 심한 장내 환경에서 장내 우세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에게 비피더스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과 노화와 장내염증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비피더스균의 우수한 항염증성 면역조절기능이 노화 방지 주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더 많은 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의 NDI(신규 식품원료)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성장하는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국내 우수 균주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인증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 FDA의 NDI, GRAS 인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규격 등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렸다.



<심포지엄 현장사진 : 비피도제공>